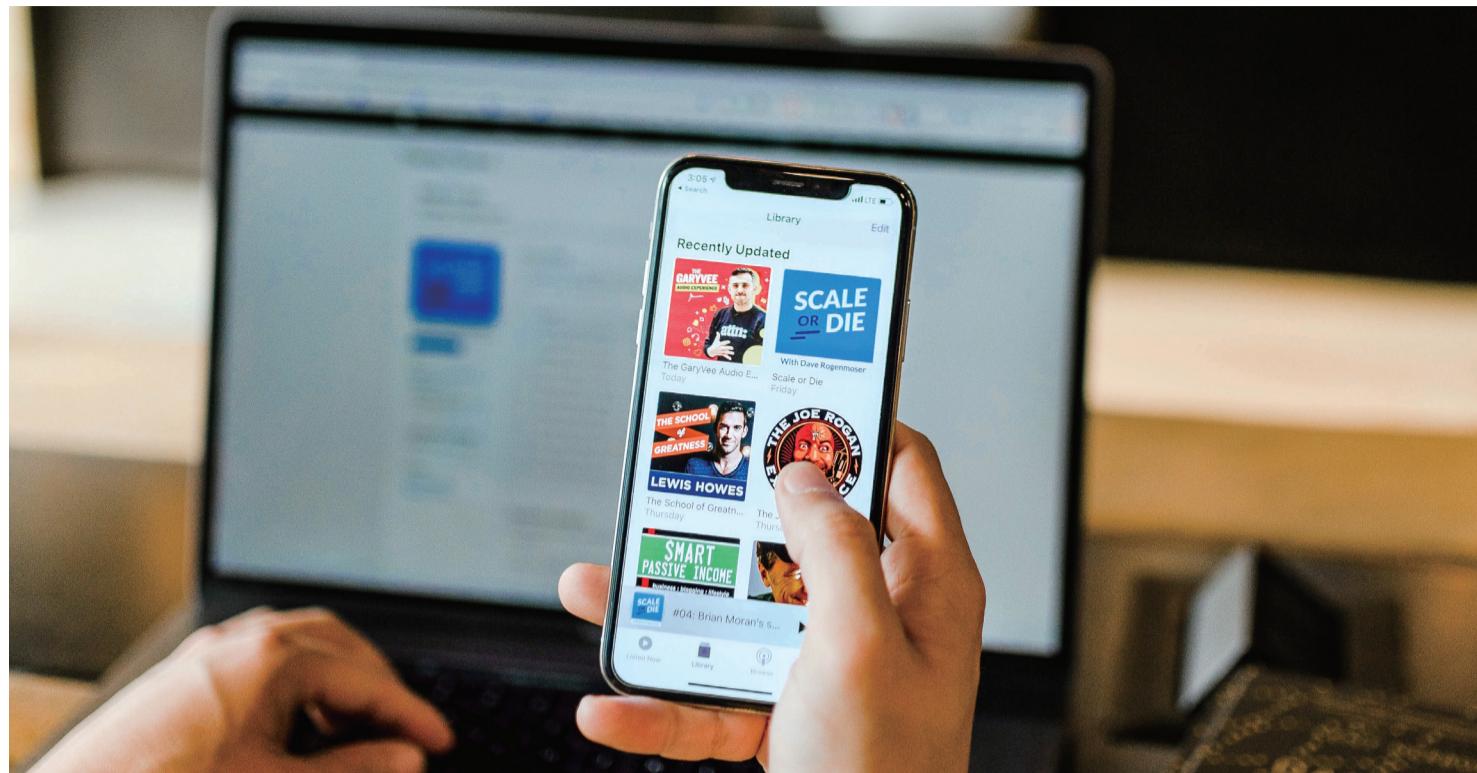


8 기획-비전공자에게 권하는 전공 도서 ⑯ 마셜 매클루언 『미디어는 맛사지다』



매클루언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가 주요 매체로 등극한 전자 시대에는 파편화 됐던 감각들이 다시 통합됐다고 주장했다.



마셜 매클루언 『미디어는 맛사지다』

부분도 있다. 요즘 디지털 파일로 된 문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멋진 화면으로 보는 것이 익숙해진 독자에게는 실제 책을 손에 들고 다각도로 움직여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매클루언은 다작가였다. 그의 저서들은 대부분 매체이론 전문서라 초보자에게 난해한 내용도 있고 모호한 문제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미디어는 맛사지다』를 입문서로 삼아 그의 다른 저서들도 찾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1960-70년대에 인기를 누렸던 그에 대한 관심이 한때 수그라들었지만, 전자 시대에 대한 그의 주장들이 오히려 디지털 시대를 예견했다는 이유로 재조명되고 있다. 매클루언의 주장대로라면 전자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감각은 새롭게 확장되거나 재구성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자 시대에 대한 그의 주장들이 디지털 시대에 어디까지 적용 가능한지, 그 중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것도 즐거운 과제가 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 마셜 매클루언 돌아보기



정혜진
교수·글로벌커뮤니케이션

캐나다의 미디어 이론가, 문화비평가이자 영문학자 마셜 매클루언은 바닷속 물고기는 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을 지각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다양한 미디어 사이를 부유하는 인간도 그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환경으로서 미디어가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매체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새롭게 분석한 매클루언의 매체이론은 커뮤니케이션학, 철학, 사회학, 인류학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그는 저서 『미디어의 이해』(1964)에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미디어에 담긴 내용보다는 각 시대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미디어에 초점을 맞춰, 그 매체가 어떠한 환경을 조성하는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영화 『비디오드롬』(1983)은 미디어에 지나치게 몰입돼 현실과 가상 사이의 경계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감독 데이비드 크로넨버그는 영화 속 등장하는 오블리비언 교수 캐릭터가 자신의 모교 토론토 대학의 교수였던 매클루언에 기반을 둔 것이라 밝혔다. 실제로 매클루언은 유명 인사와 같은 대중 지식인이었다. 전자 시대의 주요 매체 텔레비전의 중요성을 간

가에 관심을 두자는 것이다.

또한 매클루언은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금속활판 인쇄술에 의해 활자 대량생산 기술이 서구권에 전파되면서 구술문화 시대에 발달한 청각 대신 시각의 감각적 지위가 부상했다. 이와 함께 선형적 연속성, 회일성, 인과성에 기반한 논리력에 초점이 맞춰져 상상력 혹은 직관력과 연관된 다른 감각들이 퇴화됐다고 한다. 그러나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가 주요 매체로 등극한 전자 시대에는 파편화 됐던 감각들이 다시 통합됐다고 그는 주장했다. 저자 이름이 생소하더라도 누구나 “지구촌”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구술문화 중심의 원시시대 부락과 비슷한 동시성의 세계가 전자 시대(나아가 디지털 시대)에 재구축됐다는 그의 주장에서 부각된 핵심이다. 전자(디지털) 기술로 형성된 전 지구적 네트워크 덕분에 인류가 동시에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지구촌”에 살고 있다고 본 것이다.

영화 『비디오드롬』(1983)은 미디어에 지나치게 몰입돼 현실과 가상 사이의 경계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감독 데이비드 크로넨버그는 영화 속 등장하는 오블리비언 교수 캐릭터가 자신의 모교 토론토 대학의 교수였던 매클루언에 기반을 둔 것이라 밝혔다. 실제로 매클루언은 유명 인사와 같은 대중 지식인이었다. 전자 시대의 주요 매체 텔레비전의 중요성을 간

파한 그는 시사 프로그램이나 유명 토크쇼에 종종 출연했고, 〈뉴욕 타임스〉, 〈타임〉, 〈뉴스위크〉 등 다양한 매체에 그에 대한 기사가 출판됐다. 그는 우디 앤슨 영화 〈애니 휠〉(1977)에 카메오로 출연한 적도 있다. 그는 관념적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간결하고 재치 있는 사운드 바이트로 만드는 능력 덕분에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유명세 때문에 오히려 그의 주장을 들은 알파하거나 근거 없는 궤변이라고 비판받기도 했고, 학계에서는 그의 저서가 학술서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매체의 시대적 의미를 지나치게 일반화해 역사적 배경, 사회적 상황, 혹은 문화적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았다.

『미디어는 맛사지다』(1967)의 제목을 보면 “맛사지”라는 단어가 뜬금없다고 느낄 수 있다. 심지어 오타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message”가 “massage”로 잘못 찍혀 나왔는데 저자 마음에 들어 그대로 출판했다는 재미있는 후문이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매체가 인간의 모든 감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리고 전자 시대에 촉각이 되살아났다는 그의 주장을 고려하면 우리 신체를 어루만지는 “맛사지”라는 단어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든다. 혹은 “맛사지”(Massage)와 “대중 시대”(Mass Age)의 이중적 의미를 겨냥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가 단어 철자를 창의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언어유희를 즐겨 사용한 것을 보면 그럴듯한 의견이다. 가령 만화경을 지칭하는 “kaleidoscope”라는 단어를 “collide-scope”라고 써서 “충돌”(collide)이라는 의미를 살렸다.

『미디어는 맛사지다』는 특이한 디자인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매체의 형식을 중요시했던 매클루언의 생각처럼 내용에 맞춰 형식을 부각시킨 경우가 있다. 가령 “바퀴는 발의 확장”이라는 문구가 있는 면에는 사람의 발과 자동차 타이어를 각각 근접 활용한 이미지를 사용해 시각과 촉각을 동시에 자극한다. 책을 거꾸로 들거나 거울에 비춰 봐야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2022년도 국제여름계절학기
Global Collaborative
2022 Summer Program 안내**

해외 명문대 석학 및 국제기구 고위 관료로 구성된 강사진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과 함께 듣는 특별한 계절학기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한 특별한 국제여름계절학기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캘브리지, 유엔 등의 대학 소속 석학 및 현재 국제기구에서 주요 관료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된 교수진들이 Global Emergency & Action / Peace&Global Governance / Humanity & Global Civilization의 분야에서 14개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모든 수업과 활동은 영어로 진행되며 과목당 3학점(최대 6학점)의 전공(혹은 교양)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신청 및 등록 ● 온라인 강의 ● 오프라인 한국문화체험(선택) ● 수강료 ● 혜택 ● 장학 ● 프로그램 관련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02.16.~2022.05.27. 2022.06.27.~2022.07.15. (주 1주) 2022.07.18.~2022.07.21. (약 1주) 온라인 수업 과목당(3학점) 45만원 · 한국문화체험(선택) 참가비 25만원 1) 국제처 주관 영어권 과정 교환학생 선발 시 가산점 (1과목 1점, 최대 2점) 2) UN/국제기구 인턴쉽 프로그램 선발 시 가산점 (심사 후 반영) 조교장학 / 동문자녀장학 / 교직원자녀장학 (홈페이지 참고) 이메일: summer@khu.ac.kr / 문의전화: 02)961-0995~6
--	--